

2019년 3월 29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금리 안정 및 무역협상 기대로 상승 미 협상단 “강제 기술 이전 등에 대해 전례 없는 진전이 있었다”

###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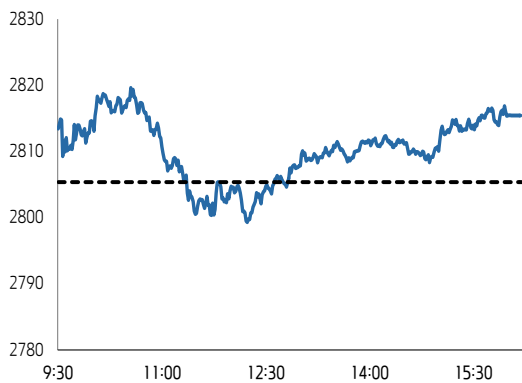
미 증시는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자 상승 출발.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인 요인. 다만, 장중한 때 하락하기도 하는 등 방향성이 없는 양상. 한편, 유틸리티, 통신이 부진한 반면, 소비, 운송업종과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다우 +0.36%, 나스닥 +0.34%, S&P500 +0.36%, 러셀 2000 +0.85%)

시장 변화를 이끌었던 미 국채금리는 3월 FOMC에서 연준이 정책을 선회한 이후 경기둔화 우려에 반응을 보이며 하락폭을 확대. 그러나 경제지표에서 즉각적인 침체 가능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각되자 안정.

한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글로벌 충격과 미국 경제’를 주제로 연설. 특히 글로벌 충격이 미국 통화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위험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브렉시트, 위축된 무역환경, 중국 성장 둔화 등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은 인내심을 가질 것 이라고 주장. 또한 경기 둔화가 이어진다면 금리인하 등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 클라리다 부의장 발언 이후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폭이 축소.

그러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경제 기술 이전 등에 대해 전례 없는 진전이 있었다” 라고 발표하고,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요구 사항인 클라우드 컴퓨팅 개방을 검토한다고 발표해 무역 협상 타결에 기대를 높이자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유지. 또한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한 2.2% 증가에 그쳤으나, 1분기 성장률이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 특히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를 통해 1분기 성장률을 3월 초의 0.4% 증가에서 27일 현재 1.5% 성장으로 상향 조정해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지 않음을 시사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128.10	-0.82	홍콩항셱		28,775.21	+0.16
KOSDAQ		719.72	-1.20	영국		7,234.33	+0.56
DOW		25,717.46	+0.36	독일		11,428.16	+0.08
NASDAQ		7,669.17	+0.34	프랑스		5,296.54	-0.09
S&P 500		2,815.44	+0.36	스페인		9,174.70	-0.60
상하이종합		2,994.94	-0.92	그리스		713.66	-0.01
일본		21,033.76	-1.61	이탈리아		21,080.97	-0.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물류회사 강세

JP모건(+1.13%), BOA(+1.11%), 씨티그룹(+2.06%)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자 상승을 보였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체인 엑센츄어(+5.20%)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 했다. Cognizant(+0.77%),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1.10%) 등도 동반 상승 했다. 철도 운송회사인 유니온퍼시픽(+1.34%), CSX(+1.40%), 노퍽크(+2.18%)와 물류회사인 UPS(+1.21%), 페덱스(+1.03%) 등은 최근 하락에 따른 매수세와 안정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상승 했다.

반면, T모바일(-4.28%)은 스프린트(-6.14%)와의 합병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 하자 하락 했다. 이는 통신업체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불거지며 버라이즌(-2.96%), AT&T(-1.24%) 등도 동반 하락 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넥스트라에너지(-1.03%), PPL(-2.32%) 등 유틸리티 업종은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 했다. 애플(+0.13%)은 워렌 버핏이 애플의 서비스 산업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하자 장중 하락하기도 했으나, 반등에 성공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59%	대형 가치주 ETF(IVE)	+0.40%
에너지섹터 ETF(OIH)	+1.59%	중형 가치주 ETF(IWS)	+0.50%
소매업체 ETF(XRT)	+0.40%	소형 가치주 ETF(IWN)	+0.71%
금융섹터 ETF(XLF)	+0.87%	대형 성장주 ETF(VUG)	+0.50%
기술섹터 ETF(XLK)	+0.41%	중형 성장주 ETF(IWP)	+0.8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1%	소형 성장주 ETF(IWO)	+1.00%
인터넷업체 ETF(FDN)	+0.58%	배당주 ETF(DVY)	+0.04%
리츠업체 ETF(XLRE)	+0.8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2%
주택건설업체 ETF(XHB)	-0.0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6%
바이오섹터 ETF(IBB)	+0.61%	미국 국채 ETF(IEF)	+0.01%
헬스케어 ETF(XLV)	+0.25%	하이일드 ETF(JNK)	+0.20%
곡물 ETF(DBA)	-0.36%	물가연동채 ETF(TIP)	+0.08%
반도체 ETF(SMH)	-0.19%	Long/short ETF(BTAL)	-0.5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0.21	+0.37%	-1.55%	+2.14%
소재	344.67	+0.95%	-1.76%	+0.18%
산업재	626.06	+0.77%	-0.48%	-2.23%
경기소비재	896.58	+0.58%	-0.75%	+3.41%
필수소비재	576.14	+0.42%	+0.63%	+2.96%
헬스케어	1,050.07	+0.26%	-1.74%	-0.82%
금융	425.83	+0.83%	-1.68%	-3.06%
IT	1,286.59	+0.38%	-2.36%	+3.74%
커뮤니케이션	157.23	-0.50%	-2.04%	+2.10%
유틸리티	293.38	-1.25%	-0.42%	+2.03%
부동산	224.60	+0.72%	+0.62%	+4.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반등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3% MSCI 신흥 지수 ETF 도 0.66%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03 계약)에 힘입어 0.40pt 상승한 276.8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4.96 원을 기록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최근 하락 요인 중 하나인 글로벌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는 점을 감안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미 증시 장중 하락 요인은 통신주에 대한 합병 반대에 따른 개별 업종 이슈였다는 점을 감안 이를 제외하면 안정을 찾은 미 증시 영향도 긍정적이다.

한편, 미 증시에서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류회사들이 전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경기 둔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한편,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인다는 점을 감안 외국인의 수급안정이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4Q GDP 성장률 전분기 대비 2.2% 증가

미국 4 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분기 대비 2.2%로 예상치(2.4%)를 하회했다. 정부지출, 개인소비, 기업투자 모두 하향 조정된 결과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1.6 만 건)을 하회한 21 만 1 천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망치인 22 만 2 천건을 하회해 전반적으로 고용시장 안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2 월 미국 잠정주택매매는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지난달 4.3% 증가했던 점을 감안 예상된 결과다. 다만, 시장 예상치가 0.1% 증가였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을 하회한 수치다.

3 월 캔사스시티 연은 지수는 전월(1) 보다 개선된 10 으로 발표되었다. 생산지수(-4→17), 기대지수(18→28) 등 대부분의 세부항목이 개선 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파운드화 급락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OPEC 의 감산에 비판을 가했으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소폭 하락에 그쳤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격화되고 있으며, 트럼프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OPEC 의 감산이 6 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 결과로 추정된다. 더 나아가 이란 제재 유예 국가중 일부를 제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점도 국제유가 하방을 제한한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유로화 및 파운드화의 약세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경기 둔화 우려로 비둘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달러화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관련 의회결정이 모두 부결되자 달러 대비 1%넘게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장 막판 29 일 브렉시트 합의안 3 차 승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되자 소폭 낙폭을 줄이기도 했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국채금리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국채금리는 장 초반 미국의 4 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한 2.2% 증가에 그치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비둘기적 발언을 하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견조한 경기에 대한 기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으로 재차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은 12 개월 평균(2.52 배)와 비슷한 2.54 배를 기록했다.

금은 달러 강세 및 주식시장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하기도 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6% 상승 했으나 철근은 0.24%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9.30	-0.19	-1.13	Dollar Index	97.223	+0.46	+0.75
브렌트유	67.82	-0.01	-0.06	EUR/USD	1.1224	-0.18	-1.32
금	1,295.30	-1.64	-1.39	USD/JPY	110.61	+0.09	-0.19
은	14.973	-2.12	-3.01	GBP/USD	1.3051	-1.05	-0.43
알루미늄	1,903.00	-0.42	+0.18	USD/CHF	0.996	+0.11	+0.40
전기동	6,360.00	+0.39	-0.95	AUD/USD	0.7078	-0.08	-0.48
아연	2,867.00	-0.69	+1.13	USD/CAD	1.3443	+0.25	+0.59
옥수수	374.00	+0.07	-0.60	USD/BRL	3.9066	-2.22	+2.97
밀	464.50	-1.06	-0.43	USD/CNH	6.7385	+0.00	+0.47
대두	889.50	+0.23	-2.31	USD/KRW	1136.80	+0.20	+0.81
커피	94.00	+0.16	-0.84	USD/KRW NDF1M	1134.96	-0.27	+0.71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389	+2.28	-14.76	스페인	1.087	+3.40	-1.10
한국	1.805	-3.50	-12.70	포르투갈	1.267	+1.30	-1.10
일본	-0.090	-2.30	-5.40	그리스	3.770	+0.10	+4.80
독일	-0.069	+1.20	-11.00	이탈리아	2.483	+3.20	+2.90